설봉 스님 '단식 중단'… 갈등은 여전

선학원 이사장 사퇴 촉구,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불투명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며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기원정사 창건주 설봉 스님이 단식 7일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긴박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설봉 스님은 3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단식정진을 풀고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설봉 스님은 목에 깁스를 하고, 황달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머물던 스님과 재가불자들에 따르면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난간서 단식 중이던 설봉 스님은 이날 2층 밖으로 사다리를 설치하려는 선학원 상임감찰 스님들과 한 차례 충돌이 있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전국비구니회는 같은 날 열린 정기총회서 올해 사업과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 다수의 안건을 문건으로 대체하고, 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선학원으로 향했다. 전국비구니회 구성원 중 1300여 명이 선학원 소속이기에 비구니회 전체의 문제와 다름없다는 인식에서다.

육문 스님은 기념관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선학원 측과 협의 후 설봉 스님을 만나기 위해 선학원 건물 2층으로 이동했다. 육문 스님은 설봉 스님을 30여분간 설득하며 병원에 갈 것을 호소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육문 스님은 "설봉 스님에게 목숨부터 구하자고 했다. 그런데 스님은 그 자리에서 죽겠다고 말하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전국비구니회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설득한 끝에 병원에 가겠다고 답했다. 설봉 스님의 이 같은 의지를 대중이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설봉 스님 설득해 병원行
선학원 앞 시위 철수했지만
소통 부재로 문제해결 난항
선학원-조계종 입장 공방도


선학원 기원정사 창건주 설봉 스님이 3월 27일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육문 스님은 "방법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설봉 스님이 단식 7일째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현장에서 시위 중인 대중도 철수함에 따라 긴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은 잠시 일단락됐다. 다만 시위에 나선 대중은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 총무 심원 스님은 "아직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전직 선학원 이사스님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 전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 범행단(단장 송운)은 기관지 〈불교저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단에 적대적인 조계종 기관지와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저들(선미모)이 조계종의 사주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즉각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대변인 금산 스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위주장으로 법진 이사장의 범계 행위와 허물을 덮어보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선학원은 종단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명확하게 확인해 허위주장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선학원이 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하고 여법하게 운영한다면 재산권과 운영권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선학원은 4월 21일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개관식과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의사를 밝혔으나 1주일간의 시위로 공사 마무리가 늦어져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한 야부당 초우 스님 원적



제19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야부당 초우 스님〈사진〉이 3월 26일 원적에 들었다. 법랍 72세, 세납 86세.

분향소는 통도사 설선상에 마련됐으며, 영결식과 다비는 3월 30일 오전 10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초우 스님은 1947년 해인사서 동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효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57년 통도사 전문강원 대교과 수료 후 1958년 3월15일 범어사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 감찰위원, 중앙종회 부의장을 거쳐 1981년 제19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통도사 부방장과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 선출 4월 10일

원로회의 소집,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도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을 선출할 제58차 원로회의가 4월 1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다. 원로회의법 제2조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17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현재 중앙종회 추천을 받은 원로는 원행(월정사)·현호(송광사)·일면(봉선사)·우송(수덕사) 스님 등 4명이다. 우송 스님을 제외한 세 스님에 대한 선출은 지난해 11월 열린 원로회의 제57차 회의서 안건이 이월된 바 있다. 우송 스님은 3월 20일 열린 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만장일치로 추천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서는 이월 안건인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도 다룬다. 대종사 법계 대상자는 원로의원인 성타·월주·지하·보선·법타·철웅 스님을 비롯해 기림사 주지 덕민 스님, 前교육원장 무비 스님,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법계위원 경일 스님,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전등사 조실 세연 스님, 계단위원 무관 스님,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 등이다. 또한 현재 공석인 원로회의 사무처장 임명동의안도 다룰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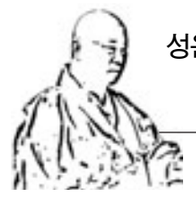
설정 스님 "문화발전 없이 강국 안 된다"

나종민 문체부 1차관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정부예산 중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예산을 확대해 정부가 국민행복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설정 스님은 3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나종민 문체부 1차관 예방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스님은 "정부와 종교 모두 대중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지만 오히려 불만과 갈등이 더욱 심해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부족한 문화예산을 2%정도로 확대해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나종민 차관은 "문체부의 문화예산 목표가 2%다. 아직 부족하지만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불교계가 담당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불교계 전폭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다만 불교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책 등에 죄송하다. 힘닿는 대로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해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기도 願을 심고 가꾸는 수행

*기도는 순수하고 간절한 발원입니다. 마음을 모아 한마음으로 염원할 때 응무소주(應無所住)의 자리에서 통로가 열리고 양심의 빛 불성(佛性)이 뿜어져 나와 삼라만상의 부처님 성품과 계합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생기고 가피(加被)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고 비는 것은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으로 시작한 기도는 간절할 때 보살심으로 바뀝니다. 칭명 염불을 하거나 경전 독송, 사경, 또는 108배를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귀의할 때 자기 중심적 기도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기도가 됩니다.


제목 · 기도 그림 · 조향숙

"나와 이웃 복되게 하오리다"
원력성취 간절히 발원
새 삶 다짐 '날마다 좋은날'

*불교는 원력(願力)의 종교입니다. 원력을 서원하고 성취되기를 발원하는 것이 불교의 기도입니다. 모든 법회는 사홍서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자기 수행과 중생 교화를 맹세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사홍서원을 법회 때마다 발원하며 기도 올리는 것입니다. 총원 사홍서원을 비롯해서 아미타불 48대원, 약사여래 12대원과 같은 별원이 다 자리이타를 발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발원을 거듭거듭 불보살님께 올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정진이기 때문입니다.

보현보살 10대원은 국악교성곡으로 작곡돼 찬불가로 '보현행원'을 서원하는 불자들도 있습니다.

의상대사 일승발원문, 당나라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을 독송하듯 자신의 발원문을 만들어 매일 축원해 보세요. 새 삶이 열립니다. 신구의(身口意) 삼업이 청정해져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향기입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침묵의 향기이고 희망이고 자비의 빛입니다.

*삼천사 입춘기도를 소개합니다. 다같이 일심으로 '화엄성중' 정진을 하겠습니다. 화엄성중 명호 속에서 소원이 녹아 이루어지도록 축원합시다. 이제 다 같이 합장하고 눈을 감고 발원문을 선창에 따라 한 목소리로 축원합니다.

"삼천사 사부대중은 새봄을 맞이하여 마음의 푸른초원을 행복의 나무가 자라는 들녘으로 만들어 행복의 열매를 수확하고자 합니다. 이 소원 이루어 지도록 마음으로 보시하고 행동으로 보시하고 말로 보시하여 행복의 나무를 길러 꽃피워서 행복의 과일을 거두고자 하옵니다. 행복의 과일이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만나는 인연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익되고 복되게 하소서. 이 소원 이루도록 일심으로 염불하며 복전 가꾸오니 이 축원 이루어 지이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기도할 때는 원(願)을 심어야 합니다. 푸른 마음의 초원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웃음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웃음으로 인연을 맺으면 웃음 보시이고 얼굴 보시입니다. 말보시 행동보시를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칭명염불을 하면 마음의 독이 소멸됩니다. 칭명염불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꿉시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4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